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	
배포일	2024. 6. 7. (금)	담당자	백원근 대표 (010-8786-2726)	

책과사회연구소,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조사 보고서 발표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어떻게 만들까?> 주제로 6월 12일 토론회 개최

“공공도서관, 청소년 이용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전국 청소년 2,000명 온라인 조사(2024년 1~2월 조사)
-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76.0%, 청소년 3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이용
- 공부·숙제 목적 이용 이외에 휴식·모임, 콘텐츠 이용, 취미·창작 이용 의향도 높아
-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에게 '제3의 공간'이 되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실이 '당연히' 있지만 청소년실이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대상자별 기준이 제시된 '한국도서관기준'을 보아도 청소년 서비스 기준은 어린이와 성인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도 청소년 관련 통계가 거의 없다. 한 마디로 공공도서관 영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권 부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난 1년간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76.0%(홈페이지 이용 포함)로 청소년 3명 중 2명 정도가 이용할 만큼 높고, 청소년의 책 읽기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항목별 필요성, 복수응답) '카페 같은 분위기 조성'(58.6%),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새 책 보유'(42.1%), '꿈·진로 관련 독서 안내와 상담'(39.1%), '청소년실 운영'(35.2%) 등이 필요하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책과사회연구소(대표 백원근)가 (재)도서문화재단씨앗(이사장 최휘영)의 지원으로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국의 만 13~18세 청소년 2,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공공도서관

관에 무엇을 바라는지 확인했다. 조사 항목에는 청소년의 여가 생활과 독서 생활 관련 문항도 포함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이용 수요와 관련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청소년 의견 조사는 처음이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청소년의 76.0%(방문 이용률은 64.1%)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했고, 3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을 이용자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공간과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복수 응답)은 독서·대출(61.0%), 공부(47.8%), 숙제(26.7%), 공간 이용(22.3%) 순이었다.

보고서는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에게 ‘제3의 공간’, 즉 집과 학교 이외의 곳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공공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공공도서관 이용 청소년들의 청소년 공간 이용 의향(5점 만점 기준)은 학습(4.13점)뿐만 아니라 휴식·모임(3.77점), 콘텐츠 이용(3.70점), 취미·창작(3.5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습 이외 목적의 이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 역시 공공도서관이 학습 공간(3.72점), 콘텐츠 이용 공간(3.39점), 휴식·모임 공간(3.37점), 취미·창작 공간(3.27점)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휴식·모임 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향은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62.2%, 비이용자의 49.2%로 높고,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친구끼리 함께 이용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이 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공간, 자료, 활동, 프로그램)가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역동적 성장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공공도서관이 공부나 학습 이외에 삶의 질, 경험의 다양성 관점에서 유익한 서비스

공간과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적합한 공공기관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소년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공간·콘텐츠·프로그램 혁신,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서비스 전문인력인 청소년 담당 전문사서 양성,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기준 마련 및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사 보고서는 도서관문화재단씨앗 웹사이트(<http://see-art.org/>) ‘연구’ 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읽을 수 있다.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6월 12일 오후 2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윤희윤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가 발표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류은영 과장, 한국도서관협회 이정수 사무총장,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지연 교수, 구산동도서관마을 고정원 사서, 라이브러리 티티섬 조은정 관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친다. 청소년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붙임 1 :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보고서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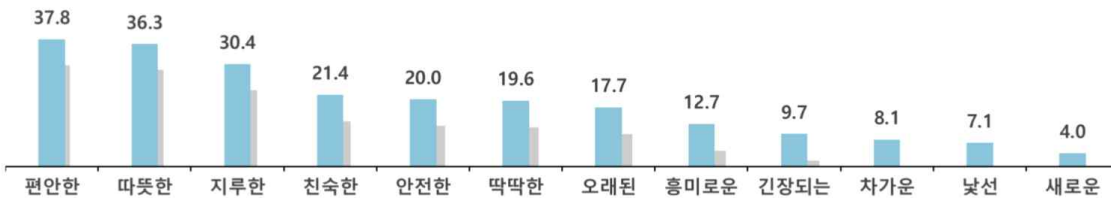
붙임 2 : 6월 12일 토론회 행사 포스터

붙임 3 :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보고서 전문 (파일 별첨)

○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 이용률 84.5%, 학기 중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자 28.7%
- 공공도서관 이용률 : 홈페이지 이용 포함 전체 이용률 76.0%, 방문 이용률 64.1%
-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이용자 기준) : 홈페이지 이용 포함 월 1회 이상 방문 44.9%
- 이용 목적(복수 응답) : 독서/대출(61.0%), 공부(47.8%), 숙제(26.7%), 공간 이용(22.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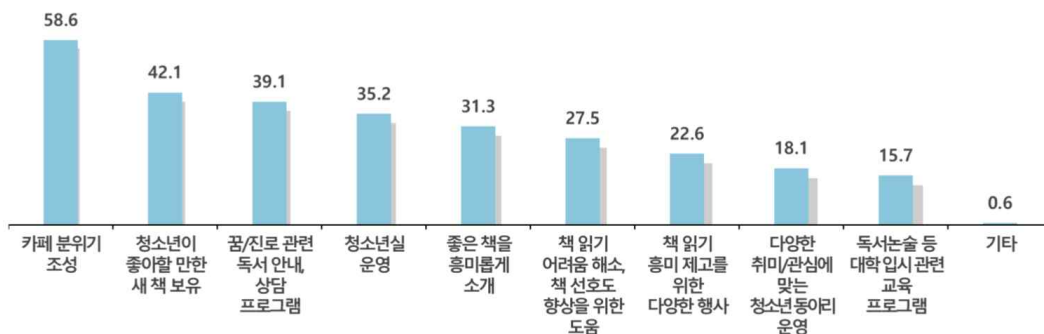
○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 이용자는 긍정적 이미지, 비이용자는 부정적 이미지 가져



○ 공공도서관 이용 청소년의 공간 이용 의향 : 학습, 휴식/모임, 콘텐츠 이용, 취미/창작 활동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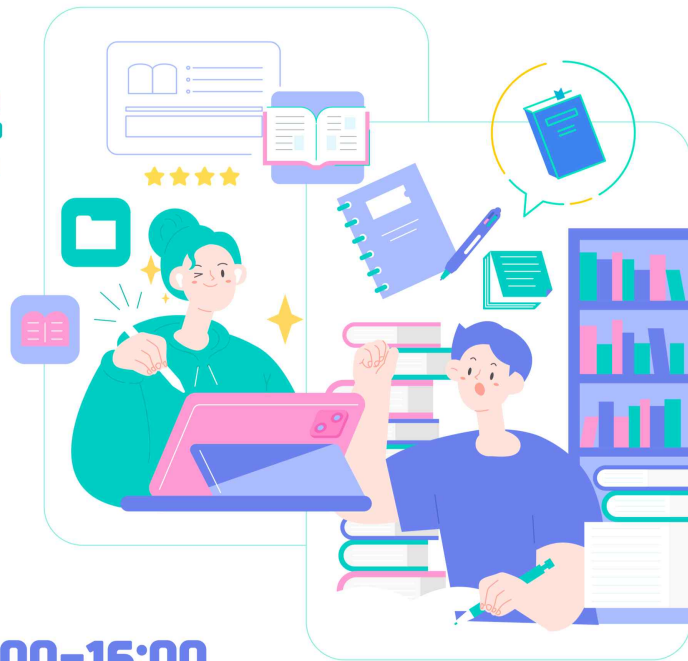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약간 있음	매우 많음	5점 평균
공부나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	3.5%	4.1%	16.4%	27.6%	48.4%	4.13점
쉬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4.2%	9.8%	23.8%	29.4%	32.8%	3.77점
편하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공간	4.7%	8.2%	24.2%	38.0%	24.9%	3.70점
취미/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6.0%	13.6%	27.2%	26.9%	26.4%	3.54점

○ 청소년의 책 읽기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항목별 필요성) : ‘카페 같은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맞춤형 공간/자료/활동/프로그램 지원, 책 읽기 어려움 해소와 흥미 제고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 발전 방안 토론회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어떻게
만들까?



2024. 6. 12. (수) 14:00-16:00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실이 '당연히' 있지만 청소년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청소년을 확대하는 도서관을 늘려야 합니다. 도서관문화재단씨앗의 후원으로 책과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한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 및 수요 조사』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논의하는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24. 6. 12. (수요일) 14:00~16:0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 강당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 주최 : 책과사회연구소
- 후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문화재단씨앗

인사말	박주옥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 김태윤 (도서관문화재단씨앗 이사)
축사	윤희윤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토론	고정원 (구산동도서관마을 사서)
	류은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과장)
	이정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은정 (라이브러리 티티섬 관장)